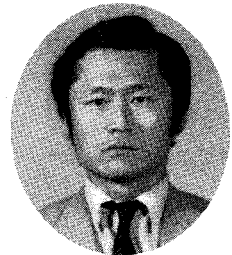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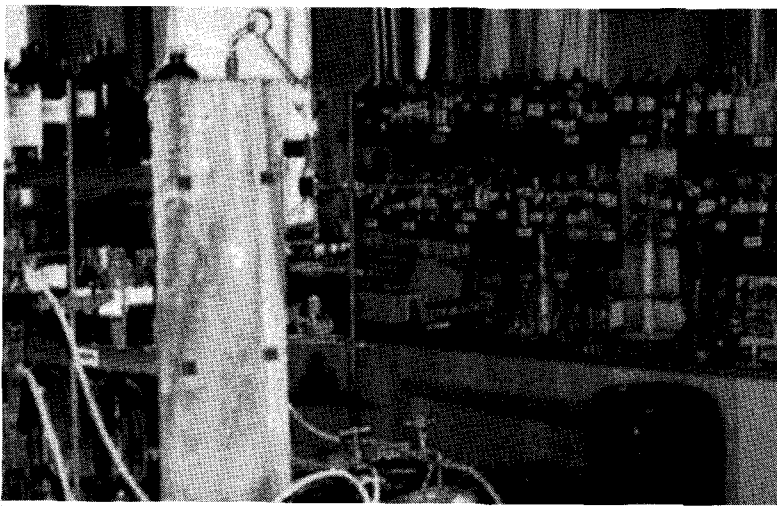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주) 한국종합공해

■ 편집부



박태현 사장



▲ 실험실 전경

그
□ 전 유공업계로서 환경청장 표창을 받은 (주)한국종합공해를 탐방, 수상의 원인을 캐본다.

“저희 회사는 '82년 3월에 설립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약하지만, 우리의 하는 일이 환경보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소신으로 최선을 다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주)한국종합공해의 대표 박태현씨의 말이다. 실험실요원으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성실하면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신념으로 개사 7년의 연륜을 쌓아가고 있는 박사장이다.

한국종합공해에는 11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은 회사일을 내집일처럼 알며 업무량이 다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짜여진 팀웍을 이루어 자발적이며 성실한 태도로 일을 한다고 박사장은 침이 마르도록 직원들 칭찬이 자자하다.

수질분석팀에 3명, 대기분석팀에 3명의 실험요원이 있으며 이들이 맡아서 축정을 해주고 있는 업체는 대기축정 의뢰업체가 150여 업체, 수질축정 의뢰업체가 150여 업체로 모두 합하여 300여개 업체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담 및 실험을 통하여 해결하곤 하는데 가장 빈번한 사례의 원인은 방지시설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다고 한다. 최근에는 문제발생이후 대략 일주일이면 원인규명이 되는 데 초기엔 상상외로 장기간을 요한 사례도 허다했었다고.

현재 각 의뢰업체의 관리인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한국종합공해의 축정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수상의 이유는 이런 저변의 여력이 바탕이 된 것이라 사료되며 이제는 환경업계에 자가 축정대행 업체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져도 결코 지나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앞으로 한국종합공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환경영향평가업무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3 (금석빌딩 306호)
전화 : 613-7876, 614-7875